

타인의 감정, 바람,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한국 아동의 이해

원 정 애 송 현 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타인의 감정과 바람,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 고자 했다. 성인 18명(실험 1)과 만 4세, 5세, 6세 아동 66명(실험 2)에게 행위자의 바람이 충족되는지 여부, 행위자가 바람의 대상을 타인에게 양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 후 행위자의 감정이 어떨지(기쁘지, 나쁘지, 그냥 그런지)에 대해 예측하게 하였다. 성인, 아동 모두 행위자가 바람이 충족 되었을 때에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양보를 했을 때에 양보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추론했다. 성인의 경우 바람이 충족되었더라도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 양보를 한 경우보다 덜 긍정적인 정서를,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양보를 한 경우에는 양보 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덜 부정적인 정서를 행위자가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5세, 6세의 아동들은 양보 행동을 하지 않고 바람이 충족된 경우보다 양보 행동을 하고 바람이 충족된 경우 더 긍정적인 감정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보 행동 여부가 감정 추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감정이 바람뿐만이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만 5세, 6세의 아동들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감정, 바람, 친사회적 행동, 양보행동, 마음이론

마음이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다(Wellman & Woolley,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적 1990; Arsenio & Kramer, 1992). 어떤 사람이 특

-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32-H00011).
- * 교신저자: 송현주, E-mail: hsong@yonsei.ac.kr
- * 실험을 도와준 연세대학교 아동발달 연구실 연구원(김민영, 진경선, 최유정, 김은영, 이우열, 이윤하, 김윤), 학부생 연구조교, 연구에 협조해 주신 부모님들 및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과 아동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전 연구에서 주로 주목받아왔던 요소는 바람(desire)이다. 바람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 2세의 아동도 자신의 바람과 타인의 바람을 구분할 수 있으며(Repacholi & Gopnik, 1997), 만 3세의 아동들은 바람에 의해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한다(Wellman & Woolley, 1990).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과를 원한다면 그는 사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동에 대한 행동의 동기로서 바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발달적 측면은 바람과 그에 따른 정서적 결과에 대한 이해 능력의 발달이다(Astington & Gopnik, 1991). 대체로 사람들은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바람과 정서적 결과와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은 만 2~3세의 어린 아동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Lagattuta, 2005; Wellman, Phillips, & Rodriguez, 2001; Wellman & Woolley, 1990).

하지만, 바람과 정서 경험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어 “바람 충족 → 긍정 정서”, “바람 비충족 → 부정 정서”의 단순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바람과 정서 경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적 규칙 혹은 규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이가 공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이 차도 한가운데 놓여 있다. 공을 가지러 가면 ‘차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엄마의 말, 즉 사회적 규칙을 어기게 된다. 반면 공을 가지러 가지 않는다면 바람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 연구(Lagattuta, 2005)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만 4, 5세의 아동은 주인공이 규칙과는 상관 없이 바람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추론한다. 하지만 만 7세의 아동은 주인공의 바람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규칙을 위반한 상황에서는 덜 긍정적이거나, 혹은 전혀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결과는 7세 이상의 아동들은 단순히 바람 충족 여부만을 고려하여 감정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사람의 태도나 규칙을 고려하여 감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에 바탕을 두고, 바람과 감정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요소로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isenberg, 1992; Williams & Clark, 1989). 남을 돕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남을 도와야 마땅한 상황에서 돕지 않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그다지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닐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나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기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된다(Eisenberg, 1986).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배경과 동기는 다양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자신의 바람과 타인의 바람이 상치되어 자의에 의해, 혹은 타의에 의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추론 과정을 친사회적 도덕 추론(prosocial moral reasoning)

이라 한다. 친사회적 도덕 추론이란 법률이나 처벌, 권위와 같이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혹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입장과 함께 상대방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고, 상대방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결정인 만큼 도덕적인 금지나 규칙에 대한 추론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Eisenberg, 1982; Mussen & Eisenberg-Berg, 1977).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에는 돕기(helping), 나누기(sharing), 협력하기(cooperating), 위로하기(comforting) 등이 존재한다(Eisenberg & Mussen, 1989). 이 중 나누기(sharing) 행동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정의되며(Eisenberg, 1982; Tisak & Ford, 1986), 만 3세에서 5세 사이 아동에게서 이러한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옥, 2005; Eisenberg-Berg & Hand, 1979).

본 연구에서는 나누기 행동의 하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양보” 행동을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한국 아동들이 양보 행동이 바람과 감정 상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한다고 이해하는지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는 동생에게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양보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 때 아이는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친사회적 행동(양보 행동)을 한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바람 충족 여부에 따라 감정을 추론한다면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양보 행동을 고려하고 양보 행

동을 한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람 비충족으로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될 수 있을 거라 추론할 수 있다.

때로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동시에 자기의 바람도 충족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예의 경우, 아이스크림을 동생에게 양보했다더니 동생이 같이 먹자고 해서 둘 다 아이스크림을 같이 맛있게 먹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바람도 충족되고, 양보 행동도 한 경우이므로 단순히 바람이 충족된 경우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친사회적인 행동은 바람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감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유발된 감정은 사건을 평가하고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Harris, 1989). 예를 들어 규칙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또는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은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이 위와 같은 행동을 억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도덕적 규칙 또는 사회적 규칙과의 갈등 상황 하에서 아동이 어떻게 감정을 추론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다(박영신, 1999; 이현진, 2009; Lagattuta, 2005). 하지만 친사회적인 행동은 도덕 규칙이나 인습규칙과 달리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친사회적인 행동과 바람 충족 요구 간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 추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예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들이 어떻게 행위자의 감정을 추론하는지 보고자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이야기 속 주인공의 감정을 추론하게 하였다. 연구 설계는 2(바람 충족 여부: 바람 충족, 바람 비충족) x 3(양보 행동 여부: 기저선, 양보 함, 양보 안함) 설계를 사용했으며, 아동들은 각 6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각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추측해야 했다.

바람 충족 조건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게 된 경우이고, 바람 비충족 조건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 조건이었다.

양보 행동 여부 차원에서 기저선 조건은 양보 행동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단순히 바람 충족 여부에 따라 주인공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었고, 양보함 조건은 주인공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조건, 양보 안함 조건은 주인공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기저선 조건은 이 조건의 결과를 양보함 혹은 양보 안함 조건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아동들이 양보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고자 포함되었다. 만약 감정 추론이 바람의 충족 여부와 더불어 양보 행동의 영향을 받는다면 양보를 하거나 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감정추론은 기저선 조건의 감정추론과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양보 행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양보 행동이 아닌 바람 충족 여부에 따라 감정 추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양보함 조건과 양보 안함 조건의 결과는 기저선 조건과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도덕성 질문을 함으로써 양보 행동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자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험에 사용될 이야기 자극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1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2는 4, 5,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 험 1

연구대상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학부생 18명(평균 연령 = 23.5세, 연령범위 19.3세-31.2세, 남 8명, 여 1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이야기는 행위자의 바람이 충족되는지 여부(바람 충족, 바람 비충족)와 양보 여부(기저선, 양보 함, 양보 안함)에 따라 6가지 종류로 나뉘었다. 이 중 두 개의 기저선 조건은 행위자의 행동이 양보 여부와 무관하고, 단순히 바람 충족 여부의 정보만 포함된 조건이었다. 나머지 네 조건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원하는 대상과 같은 것을 원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며, 주인공이 양보 행동을 하는지, 주인공의 바람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가 사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이야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실험에서는 특정 종류의 이야기(예를 들면 주인공이 원하는 특정 사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야기들 간에 차이가 있었음)가 감정 추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야기에 사용된 특정 사물에 따라 6가지 종류의 이야기로 나누고, 여러 피험자에 걸쳐 각 종류의 이야기가 6가지 조건에 한 번씩 할당되도록 이야기를 역균형화시켜 6가지 이야기 리스트를 만들었다. 각 피험자는 6가지 리스트 중 하나의 리스트를 제시받아 총 6개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는 6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스토리들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었다.

1) 바람 충족, 기저선 조건

“영희는 사탕을 먹고 싶었어. 그래서 영희가 사탕이 들어있는 병을 열어보니 사탕이 한 개 있었어. 그래서 사탕을 먹었어.

그러면 영희 기분은 어땠을까?”

2) 바람 충족, 양보함 조건

“집에 공이 하나밖에 없었어. 민수는 공을 가지고 놀고 싶었어. 그런데, 민수는 지수도 공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민수는 지수에게 “지수야, 네가 가지고 놀아” 하면서 공을 양보했어. 그랬더니 지수가 “우리 같이 가지고 놀자” 라고 얘기했어. 민수와 지수는 모두 공놀이를 할 수 있었어.

그러면, 민수 기분은 어땠을까? 민수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3) 바람 충족, 양보 안함 조건

“놀이터에 그네가 하나밖에 없었어. 현정이는 그네를 타고 싶었어. 그리고 현정이는 정원이도 무척 그네를 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현정이는 얼른 뛰어가서 그네를 혼자 탔고, 정원은 그네를 탈 수 없었어. 현정이는 그네를 타면서 가만히 서 있는 정원을 보았어.

그러면 현정이 기분은 어땠을까? 현정이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4) 바람 비충족, 기저선 조건

“영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싶었어.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러 갔더니 자동차가 망가져 있었어. 영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싶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없었어.

그러면, 영수 기분은 어땠을까?”

5) 바람 비충족, 양보함 조건

“집에 자전거가 한 대 밖에 없었어.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는 승현이도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승현이에게 자전거를 양보하기로 했어. 우리는 승현이에게 ‘승현아, 네가 자전거 타’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지 못했지만, 승현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었어.

그러면 우리 기분은 어땠을까? 우리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6) 바람 비충족, 양보 안함 조건

“식탁에 주스가 한잔 밖에 없었어. 정민이는 주스가 먹고 싶었어. 그리고 정민이는 지원이도 주스를 무척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정민이는 주스를 혼자 마시려고 했어. 정민이가 식탁에 있는 주스 컵을 잡으려다가 컵을 떨어뜨려서 주스가 다 쏟아졌어. 결국 정민이도 주스를 못 먹었고, 지원도 주스를 못 먹었어.

그러면, 정민이 기분은 어땠을까? 정민이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절차

실험 참가자들은 6개 유형의 이야기가 고정적인 무선 순서로 제시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야기를 읽은 후 주인공의 기분이 어떨지(좋은지, 나쁘지, 혹은 그냥 그런지)에 대한 감정 추론과, 그 주인공이 어떤 아이인지(착한, 나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하였다.

점수화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은 기분이 좋은지,

그냥 그런지, 나쁜지에 각각 1점, -1점, 0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도덕적 판단에 대한 반응은 착한 아이에 1점, 나쁜 아이에 0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1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의 예비 분석 결과 성별과 제시된 이야기 유형에 의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 $F_s < 4.20$, $ps > .0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별과 이야기 종류 요인을 포함하지 않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의 평균치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종속 변인에 대한 2(바람: 충족, 비충족) x 3(양보 행동: 기저선, 양보 함, 양보 안함)의 2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바람에 대한 주효과($F(1, 17) = 79.393$, $p < .001$), 양보에 대한 주효과($F(2, 34) = 88.821$, $p < .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바람과 양보의 상호작용 효과($F(2, 34) = 41.175$, $p < .001$) 역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 준다. 첫째, 성인들은 바람이 충족된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다. 둘째, 양보를 한 경우에는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다. 셋째, 바람이 충족되었더라도 양보를 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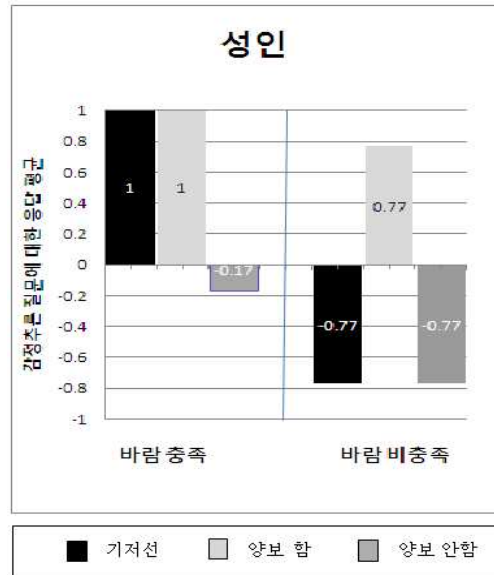


그림 1.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성인의 응답의 평균

우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다. 넷째, 바람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양보를 한 경우에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덜 부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보 행동이 감정 추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반응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반응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종속 변인에 대한 2(바람: 충족, 비충족) x 2(양보 행동: 양보 함, 양보 안함)의 2원 반

표1.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성인 응답의 평균

	바람 충족		바람 비충족	
	양보함	양보 안함	양보함	양보 안함
성인	1.00	0.24	1.00	0.12

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보의 주효과 ($F(1, 16) = 125.440, p < .001$)가 유의미 하였다. 하지만 바람의 주효과, 바람과 양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_s = 1, p_s = .332$.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이 도덕성 추론에 바람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양보 행동을 한 경우에는 하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감정추론은 단순히 바람의 충족 여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 행동여부와 관련이 있다. 즉, 동일하게 바람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덜 긍정적인 감정을,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양보 행동을 한 경우에는 덜 부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다. 둘째,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양보 행동을 한 경우에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능력의 발달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2에서는 만 4세, 5세, 6세를 대상으로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2

연구대상

실험은 만 4세(평균연령 = 53.7개월, 연령범위 48.5개월-59.6개월, 남아: 14명, 여아: 10명)의 아동 24명, 만 5세(평균연령 = 67.2개월, 연령 범위: 62.1개월-71.8개월, 남아: 12명, 여아: 12명)의 아동 24명, 만 6세(평균연령 = 74.1개월, 연령 범위: 72.4개월-77.0개월, 남아: 11명, 여아 7명)의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추가로 3명의 아동(4세: 2명, 6세: 1명)은 실험에 참가하였으나 두 개의 기저선

조건 모두에서 오답을 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참가 아동 모집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 서울시에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이야기는 실험 1에서 성인에게 사용된 이야기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아동에게는 설문지 형식이 아니라 실험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사용 되었다.

절차

6개의 이야기들은 실험 1에서 성인에게 사용된 설문지와 동일한 순서로 구성이 되었다. 성인과 달리 아동에게는 컴퓨터로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이야기가 끝난 후 실험자는 아동에게 “OO의 기분은 어땠을까?”(감정 추론 질문), “OO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도덕성 추론 질문)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실험의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실험은 실험실 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조용한 방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동은 한 명씩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이야기에 상응하는 그림을 컴퓨터를 통해 보여 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후 이야기 주인공의 기분이 어떨지(좋은지, 나쁜지, 혹은 그냥 그런지)에 대한 감정 추론과 함께 그 주인공이 어떤 아이인지(착한, 나쁜)에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하였다. 감정 추론을 할 때에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세 종류의 얼굴 표정이 붙은 그림판을 보여주며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그냥 그런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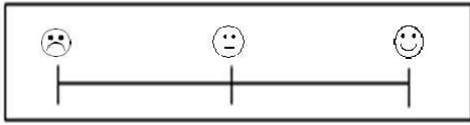


그림 2. 감정 추론에 사용된 얼굴 표정

얼굴 표정 밑에 자석을 붙이게 하였다. 실험자는 실험 전에 각 얼굴표정을 설명하여 이와 같은 그림에 아동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점수화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과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반응 역시 실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화 되었다.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의 예비 분석 결과 아동의 성별과 제시된 이야기 유형에 의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 $F_s < 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이야기 종류 요인을 포함하지 않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의 평균치는 다음의 그림 3과 같고, 아동들의 반응은 3(연령: 4세, 5세, 6세) x 2(바람: 충족, 비충족) x 3(양보 행동: 기저선, 양보함, 양보 안함)의 3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바람에 대한 주효과 ($F(1, 64) = 347.556, p < .001$)가 유의미하여, 아동들도 실험 1의 성인들처럼 바람이 충족된 경우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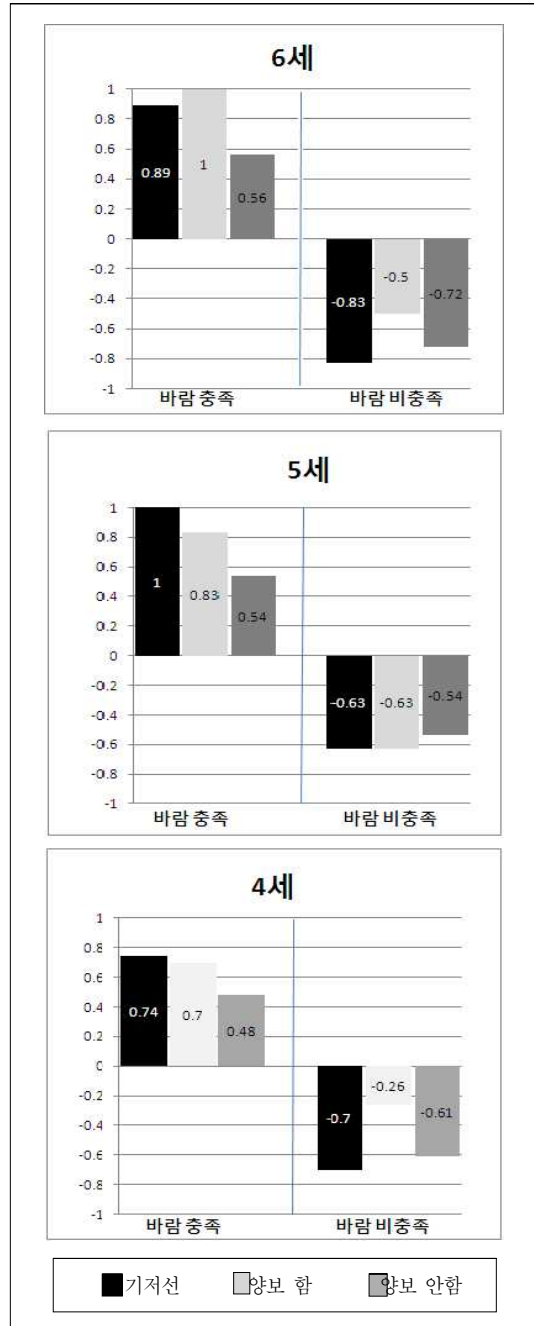


그림 3.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연령별 응답 평균

* 4세 아동 중 1명의 아동은 6개의 감정 추론 질문 중 5개의 질문에만 응답을 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정적인 감정을,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추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보에 대한 주효과($F(2, 128) = 4.757, p < .05$)도 유의미하였는데 이를 통해 양보 행동을 한 경우보다 양보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덜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바람과 양보의 상호작용 효과($F(2, 128) = 5.881, p < .01$) 역시 유의미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 실험 2의 아동들이 실험 1의 성인들처럼 바람이 충족되었지만 양보 행동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바람도 충족되고 양보 행동을 한 조건이나 단순히 바람이 충족된 기저선 조건보다 덜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하였다, $ps < .05$. 또한, 동일하게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양보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기저선 조건보다 덜 부정적인 감정을 추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연령의 주효과, 바람과 연령, 양보와 연령, 바람, 양보,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ps > .201$. 이는 4세와 5세, 그리고 6세의 반응 패턴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바람이나 양보의 효과의 발달적 양상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각 연령 집단별 분석을 하였다.

먼저 6세의 경우 바람의 주효과($F(1, 17) = 427.345, p < .001$)와 양보의 주효과($F(2, 34) = 4.103, p < .05$)가 유의미하였고, 바람과 양보의 상호작용효과($F(2, 34) = 1.789, p = .182$)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Bonferroni 사후분석 결과 바람 충족 조건에서만 양보 여부에 따라 조건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양보를 하지 않고 바람이 충족된 조건에서는 양보를 하고 바람도 충족된 조건보다 유의미

하게 낮은 긍정적 반응을 추론하였다, $p < .025$.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보 행동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s > .16$.

5세의 경우 바람의 주효과($F(1, 23) = 221.154, p < .001$)가 유의미하였고, 바람과 양보의 상호작용효과($F(2, 46) = 4.052, p < .05$) 또한 유의미하였으나 양보의 주효과($F(2, 46) = 1.445, p = .246$)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5세 역시 바람이 충족된 경우에서만 양보 행동에 따른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바람이 충족되었더라도 양보를 하지 않은 조건은 기저선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긍정적 정서를 추론하였다, $p < .025$.

반면 4세의 경우 바람의 주효과($F(1, 22) = 49.473, p < .001$)가 유의미하였고, 양보의 주효과($F(2, 44) = 1.812, p = .175$) 및 바람과 양보의 상호작용 효과($F(2, 44) = 1.864, p = .167$)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세의 경우 바람 충족 여부를 고려하면서 주인공의 감정을 판단하였지만, 양보 행동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반응*

아동의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표 2.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의 평균

	바람 충족		바람 비충족	
	양보함	양보 안함	양보함	양보 안함
4세	0.96	0.43	0.78	0.43
5세	1.00	0.29	0.90	0.43
6세	1.00	0.19	0.88	0.25

* 4개의 도덕성 판단 질문에서 한 질문이라도 대답을 하지 않은 아동(4세: 1명, 5세: 3명, 6세: 2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에 나타나있다. 종속 변인에 대한 2(바람: 충족, 비충족) x 3(양보 행동: 기저선, 양보 함, 양보 안함)의 2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양보에 의한 주효과($F(1, 59) = 111.081, p < .001$)와 바람과 양보의 상호작용 효과($F(1, 59) = 6.000, p < .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바람 충족의 경우 양보함 조건에서 양보 안함 조건보다 도덕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고($p < .001$), 바람 비충족의 경우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p < .001$.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바람 보다는 양보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각 연령 집단의 도덕성 판단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4, 5, 6세 아동 모두 바람 충족, 바람 비충족 조건 모두에서 양보를 한 경우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보다 도덕적이라고 판단했음이 나타났다, $ts > 2.85, ps < .01$.

이러한 결과는 바람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양보 행동을 한 경우에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착한 아이로 판단하는 경향이 적어도 만 4세의 아동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서 추론에 있어서는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인 정서를,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정서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양보 행동을 했을 경우 양보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좀 더 긍정적인 정서를 예측하였다. 하지만, 양보 행동의 효과는 바람 충족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아, 아동들은 바람이 충족된 경우에만 양보 행동에 의한 긍정적인 정서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바람과 양보 행동의 효과가 각 연령 집단 내에서 유의미한지를 살펴본 개별 연령 집단 분석에서는 만 5, 6세의 아동들에게서 바람 충족뿐만 아니라 양보가 감정 추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만 4세 아동의 결과는 만 5, 6

세 아동의 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았으나, 바람 충족 여부만 유의미하게 감정추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양보를 한 경우에,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이런 양보 행동의 도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4세 아동에게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4세 아동도 본 실험에 사용된 자극에 포함된 양보 행동을 잘 인지하고, 도덕적인 기능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가장 어린 집단인 4세 아동은 양보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감정 추론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논의

기존 연구들은 만 2-3세의 아동들도 바람의 충족 여부가 감정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함을 보여 왔다(Wellman & Woolley, 1990). 그리고 학령 전기 아동들이 바람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도, 사회적인 규칙, 규범적 규칙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이현진, 2009; 전명숙 & 김혜리, 1999; Astington & Gopnik, 1991; Lagattuta, 2005; Wellman & Woolley, 1990). 이러한 기존 문헌에 추가해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과 감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양보 행동의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성인과 학령 전 아동 집단 간 유사성

본 연구에서는 성인 및 학령 전 아동들의 감정 추론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성인과 모든 연령의 아동은 바람이 충족된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충족되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감

정을 예측하였다. 이는 선행연구(Lagattuta, 2005; Wellman, et. al., 2001; Wellman & Woolley, 1990)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과 아동 모두 행위자의 양보 여부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고 추론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1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 2 모두에서 양보를 한 경우에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추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험 1, 2 모두에서 바람 충족과 양보 행동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 성인과 아동 집단 둘 다 바람 충족 여부와 감정 상태 간의 관계에 양보 행동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함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양보 행동 여부에 따른 도덕성 추론 능력의 발달을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성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아동은 바람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양보 행위에 의거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의 아동들이 친사회적인 행동 측면에서 무엇이 ‘착한’ 행동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만 5세 이상의 한국 아동은 장난감을 나누지 않고 혼자 가지고 놀거나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 등의 도덕적인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인습적 규칙(인사하지 않는 것,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을 위반한 것보다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박영신, 1999).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성인과 학령 전 아동 집단 간의 차이점

위에서 논의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과 성인 간에 감정 및 도덕성 추론에 있어서 상

당한 유사성이 발견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1의 경우 바람이 충족된 경우뿐만 아니라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보 행동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이 충족되었더라도 양보 행동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기저선 수준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양보 행동을 한 경우에는 기저선 수준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다. 하지만 실험 2의 아동의 경우에는 바람이 충족된 경우에만 양보 행동 여부가 감정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하였고,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보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만 6세의 경우 양보 행동을 하지 않고 바람이 충족된 경우, 양보 행동도 하고 바람도 충족된 조건보다 덜 긍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다. 만 5세 아동들은 기저선 조건보다 양보 행동을 하지 않고 행위자의 바람이 충족된 조건에서 덜 긍정적인 감정을 추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아동들은 만 5세, 만 6세 아동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적어도 만 5-6세 아동들의 경우 성인들과 달리 바람이 충족된 경우에만 양보 행동에 따라 감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보 행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추론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령 전 아동들에 있어서 양보 행동 효과의 비대칭성(asymmetry)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나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친사회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행동은 도덕적 갈등을 일으

키지 않고 비교적 쉽게 수행될 수 있다(Eisenberg & Shell, 1986).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른 나누기 행동의 경우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비용이 요구되고 도덕적인 갈등을 더 느낄 수 있다. 성인들의 경우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다양한 보상(자존감 증진, 사회적 승인, 공동체의 화목 등)에 대한 경험이 많으므로 친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을 좀 더 쉽게 고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성인들은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가 양보 행동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로 인해 충분히 상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으로 경험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친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의 강도(intensity)를 약하게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가 도덕적 갈등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 문제

본 연구 결과는 타인의 감정이 바람의 충족 여부뿐만이 아니라 양보 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추론 능력이 적어도 만 5세부터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리고 4세 집단에서 양보 행동의 효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4세 집단의 결과는 5세, 6세 집단의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4세 아동들도 5, 6세 아동들과 유사한 감정 추론 양상을 보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아동들은 행위자의 감정 추론 시 바람 충족 여부 이외의 의도나 사회적 규칙 준

수 여부와 같은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Arsenio & Kramer, 1992; Lagattuta, 2005; Peterson & Siegal, 2002).

향후 연구에서는 왜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서 보다 더 어린 아동들이 바람 충족 여부와 상치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감정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보 행동에 관련된 도덕적 규칙(예: 동생과 과자를 사이좋게 나눠먹기)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관습적 규범(예: 교통법규 지키기)들보다 아이들이 좀 더 중요하고 당위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영신, 2001). 따라서 아동들은 양보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유발되는 정서가 사회적, 관습적 규범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음으로써 유발되는 정서보다 좀 더 강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친사회적인 행동은 가정, 학교, 또래집단과 같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Eisenberg, 1992; Janssens & Dekovic, 199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친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는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따른 감정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가, 관계를 중요시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양문화와 서양 문화 간에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 및 타인의 감정 추론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Kim & Markus, 1999; Sanchez-Burks et. al., 2003).

추가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의 소재에 따라 감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 능력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Lagattuta(2005)의 연구에서는 행위자가 내적 동기

혹은 외적 동기에 의해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감정 예측이 달라졌다. 친사회적 행동 역시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감정 예측과 도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하는 친사회적 행동과 외적 동기에 의해 수행되는 친사회적 행동이 유발할 수 있는 감정 상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추론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양보 유무에 따라 감정상태가 달라진다고 아동들이 추론한 결과는, 죄책감이나 자긍심 등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에 대한 이해의 발달 가능성을 함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자의식적 정서 발달에 대한 향후 연구에 기초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맺음말

감정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선행 요인들이 존재하며, 그 사이에는 복잡한 인과관계 또한 존재한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이해능력을 규명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본질을 밝힐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그러한 이해능력의 발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육 환경, 문화 차, 친사회적인 행동의 동기 등의 변인을 추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친사회적인 행동과 감정 추론 간의 다양한 관계들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참 고 문 헌

김영옥 (2005). 한국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25(3), 51-75.

박영신 (1999).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11-23.

박영신 (2001).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83-104.

이현진 (2009). 한국 아동에서 살펴본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0), 1-18.

전명숙, 김혜리 (1999). 정서추론으로 살펴본 믿음과 바람에 대한 아동의 이해. 인간발달연구, 6(1), 102-121.

Arsenio, W. F., & Kramer, R. (1992). Victimizers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 915-927.

Astington, J. W., & Gopnik, A. (1991). Developing understanding of desire and intention. In A. Whiten(ED.), *Natural theories of mind* Oxford, U. K: Blackwell.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arlbaum.

Eisenberg, N. (1992). The caring chi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Eisenberg, N., & Shell, R. (1986). The relation of prosocial moral judgment and behavior in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co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426-433.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Berg, N., & Hand, M. (1979).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356-363.
- Harris, P. L. (1989). Children and emoti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xford: Basil Blackwell.
- Janssens, J. M. A. M., & Dekovic, M. (1997). Child rearing, prosocial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20*(3), 509-527.
- Kim, H., & Markus, H. R. (1999). Deviance or uniqueness, harmony or conformity?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785-800.
- Lagattuta, K. H. (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s, rules, and emotions. *Child Development, 76*(3), 716-733.
- Mussen, P. H., & Eisenberg-Berg, N. (1977).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San Francisco: Freeman.
- Peterson, C. C., & Siegal, P. (2002). Mindreading and moral awareness in popular and rejected preschooler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05-224.
- Repacholi, B. M., & Gopnik, A. (1997). Early Reasoning About Desires: Evidence From 14- and 18-Month-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2-21.
- Sanchez-Burks, J., Lee, F., Choi, I., Nisbett, R., & Zhao, S. (2003). Conversing across cultures: East-west communication styles in work and nonwork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63-372.
- Tisak, M., & Ford, M.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interpersona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2*, 291-306.
- Wellman, H. M., & Woolley, J. D. (1990). From simple desires to ordinary beliefs: The early development of everyday psychology. *Cognition, 35*, 245-275.
- Wellman, H. M., Phillips, A. T., & Rodriguez, T. (2001).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perception, desire, and emotion. *Child Development, 71*(4), 895-912.
- Williams, G. M., & Clark, M. S. (1989). Providing help and desired relationship type as determinants of changes in moods and self-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22-734.

1차 원고 접수: 2009.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09. 11. 16.

최종 게재 결정: 2009. 11. 16.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sires and Prosocial Behaviors

Jeong-ae Won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among others' emotions, desires and prosocial behaviors. Adults and children(4-, 5-, 6-year-olds) were asked to indicate the protagonist's feelings(happy, sad, or "just okay") after listening to a series of six stories. The stories varied on (1) whether the protagonist's desire was fulfilled and (2) whether the protagonist shared a desired object with the other story character. Both adults and children reasoned that the protagonist would be happier when her/his desire was fulfilled than when her/his desire was not fulfilled. When the protagonist's desire was fulfilled, both adults and children attributed more positive emotions to the protagonist who shared her desired object with someone else than to the one who did not share her desired object. When the main character's desire was not fulfilled, children, but not adults, fail to reason that sharing behaviors could be related to feeling less of negative emotions. The results demonstrate children's understanding that others' emotions can be affected by others' prosocial behaviors as well as others' desires.

Keywords: emotions, desires, prosocial behaviors, sharing behavior, theory of mind

